

## 2. 투자 정보 및 IR 자료(뱅크샐러드)

뱅크샐러드는 2012 년 창업 이후 현재까지 총 5 차례의 주요 투자 라운드를 거치며 약 **2,000 억 원**에 이르는 누적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의 투자 유치 히스토리는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 사례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이며, 벤처캐피털뿐만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 해외 투자자 등 다양한 자본이 참여해왔습니다. 주요 투자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드 투자 (2015 년):** 설립 초기인 2012~2014 년에는 자체 자본과 정부 지원사업 등으로 운영되다가, 2015 년 경 외부 시드 투자를 통해 약 **19 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투자에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등 초기 스타트업 지원 조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드 자금은 개인화 카드추천 서비스 출시에 맞춰 사용되었고, 서비스 프로토타입 완성과 초기 사용자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 **시리즈 A (2017 년 초):** **30 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라운드에는 **KB 인베스트먼트**와 **키움인베스트먼트** 등 금융권 계열의 VC 가 리드하여 참여했습니다. 뱅크샐러드가 가계부 앱으로서 가능성을 입증하자 국내 금융사들도 관심을 보였고, KB·키움 등의 투자는 향후 제휴와 협업 관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성격도 있었습니다. 시리즈 A 자금으로 레이니스트는 모바일 앱 개편과 마케팅을 진행해 사용자 기반을 크게 늘렸습니다.
- **시리즈 B (2018 년 말):** **140 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로, 본격적인 성장 가속화 단계였습니다. 투자에는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두나무엔파트너스(카카오 계열)**,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KB 인베스트먼트(후속 투자)**, **뮤렉스파트너스**, **베이스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하여 총 6 개 투자사가 컨소시엄을 이뤘습니다. 2018 년 10 월 이뤄진 시리즈 B 는 당시 국내 PFM 스타트업 중 최대 투자금 유치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뱅크샐러드의 **폭발적인 성장 지표**에 주목했는데, 실제로 **전년 대비 725%의 매출 신장률**, **MAU(월간 활성사용자) 277% 증가** 등의 수치가 IR 에서 강조되었습니다.

뱅크샐러드는 시리즈 B 자금을 통해 서버 인프라 확충, 인재 채용(개발자,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등),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를 가속화했습니다.

- **시리즈 C (2019 년 8 월):** 약 **450 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 **3,000 억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라운드는 신규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가 대거 참여한 대형 딜로서, **인터베스트, 고릴라 PE, IMM 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등의 새 투자자들과 더불어 시리즈 B 에 참여했던 **에이티넘, 컴퍼니 K, KB 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뮤렉스** 등이 재참여했습니다. 투자 수요가 높아 **당초 목표보다 초과 모집**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며, 이는 뱅크샐러드가 **국내 금융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플레이어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리즈 C IR 에서 강조된 내용은 “**국내 최초 마이데이터 구축 선도, AI 등 최첨단 기술 접목한 추가 사업 개발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투자를 전후로 뱅크샐러드는 마이데이터 인가 작업을 마무리했고, 2021 년부터 본격적인 개인 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시리즈 C 투자 후 누적 투자유치액은 약 644 억 원에 달했습니다.
- **시리즈 D (2022 년 6 월):** 약 **1,350 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라운드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 **6,000 억 원**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SKS 프라이빗에쿼티(국내 PE), KT(케이티, 통신 대기업), 기아자동차**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전략적 투자 성격을 띠었습니다. 특히 SKS PE 가 약 1,000 억 원을 투자해 지분 **21.15%**를 확보하며 최대 재무적 투자자가 되었고, KT 가 5.56% 지분을 취득해 3 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 주주들의 일부 후속 투자와 기타 투자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시리즈 D 는 **핀테크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KT 는 뱅크샐러드의 방대한 금융데이터와 통신데이터의 결합 시너지를 모색했고, 기아는 모빌리티 데이터와 금융 접목을 기대하며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즈 D 투자로 뱅크샐러드의 **누적 투자액은 약 1,989 억 원(약 2 천억 원)**에 이르렀으며, 자본총계가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외부 주주 구성이 더욱 다변화되었습니다.

뱅크샐러드는 이처럼 단계별 투자 유치를 통해 빠르게 덩치를 키웠고, **2025 년 현재 IPO(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2023 년 말 미래에셋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가치 산정 등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있으며, 2025~2026 년경 코스피 혹은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리즈 D 시점의 기업가치(약 6 천억)를 넘어서는 **성장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있어, **뱅크샐러드**는 IPO 전까지 수익성 개선과 사업 모멘텀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IR 자료 및 동향:** **뱅크샐러드**는 비상장사지만 투자유치 시마다 핵심 성과 지표와 전략을 담은 IR 을 진행했습니다. 예컨대, 2019 년 시리즈 C 당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가장 먼저 구축하여 기술력 강화에 초점”**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타 산업 데이터 결합을 통한 맞춤 솔루션 고도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기반 보험 추천 서비스 운영 경험을 언급하며 **이종 산업 데이터 결합 노하우**를 강조했습니다. CEO 김태훈 대표는 IR 인터뷰 등에서 **“뱅크샐러드는 금융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중립 플랫폼으로서 개인 맞춤 금융 혁신에 집중하고 금융사들과 협업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토스 등이 직접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과 달리 **뱅크샐러드**는 **플랫폼 생태계 조성자**로 남겠다는 전략을 투자자들에게 천명한 것입니다.

2022 년 시리즈 D 라운드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 포인트는 **수익모델 다각화와 IPO 준비**였습니다. SKS PE 등 기관투자자는 투자 회수 관점에서 상장을 통한 엑시트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뱅크샐러드** 경영진은 **흑자전환 로드맵과 상장 스토리**를 IR 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2024 년에 걸쳐 **헬스케어 데이터 비즈니스 수익화**(유전자·미생물 검사 서비스 판매 및 제휴 수익), **보험 등 금융상품 중개 수수료 수익 증대,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비용 효율 개선** 등을 이뤄내어 2024 년 말~2025 년 초에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2024 년 들어 월 단위로는 흑자를 기록한 달도 발생하여(2024 년 11 월 등) 이러한 IR 메시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요 투자자 구성:** **뱅크샐러드**의 주주 구성은 시리즈 D 기준으로 창업자 김태훈 대표 및 경영진 지분 외에 SKS PE(21.15%), KT(5.56%), 기아차(비공개 %), 그리고 국내 유수 VC 들(에이티넘, 인터베스트 등)과 해외 VC(500 Global 등)로 다채롭습니다. 전략적 투자자인 KT 와 기아의 참여는 ICT 와 모빌리티 분야와의 융합 기회를 열어주었고, 기존 금융권 투자자(KB, 키움 등)는 마이데이터 협업 및 향후 상장 시 지분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투자자 기반은 **뱅크샐러드**가 **핀테크 업계의 핫딜(hot deal)**로서 여러 분야의 러브콜을 받아왔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뱅크샐러드는 정부나 공공 부문에서도 혁신성장을 인정받아 **K-핀테크 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각종 데모데이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는 IR 관점에서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추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진출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해외 투자자 앞에서 피칭하거나, 서울 핀테크랩 주관 행사에 참가해 기술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외 활동 역시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긍정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